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참가작가들>

2004/06/10 17:52 송

(서울=연합뉴스) 김은주 기자 = 오는 9월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제9회 국제건축전에 사상 처음으로 주제관, 국제관, 특별전 3개 부문 전체에 한국 작가들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관을 통해 출품해 온 것과는 달리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총감독이 작가를 선정하는 주제관에 최문규, 조민석씨가 미국인 제임스 슬레이드와 합작으로 작품을 내놓았고, 특별전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소재로 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주제관 출품작은 '말기 테마파크'(말기가 좋아), 경기도 파주시 해이리에 위치한 '말기 테마파크'는 지난해 1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말기 테마파크'의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600여평으로 전시, 판매, 식당, 휴식공간이 들어서 있다. 말기는 10대를 위한 의류와 편식상품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로 이 작품은 상상과 실제, 쇼핑과 놀이, 자연과 인공, 문화와 상업의 이분법을 허물고 말기의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한다.

한국관에는 커미셔너 정기용씨의 주도로 김광수, 송재호, 유석연씨가 '빙의 도시(City of bAng)'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다.

'빙(bAng)'은 영어의 방(room)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어만 있는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노래방, PC방, 찜질방, 비디오방, 놀이방, 전화방, 소주방, 온라인상의 방까지 일상에서 온갖 방이 생겨나고 퍼지는 한국적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김광수는 현대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도시의 다른 공간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도시라는 집'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송재호는 정보의 네트워크가 도시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도시적 시스템이 새로운 도시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질문한다. 유석연은 '스쿨 파크'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을 위의 도시'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에는 서울, 뉴욕, 파리, 베를린, 런던, 도쿄(東京) 등 1개 도시가 초청돼 '도시와 물'의 관계를 다룬 프로젝트들이 소개된다. 김선아씨가 기획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6x 7.2m 공간에 영상과 그래픽을 이용해 청계천의 역사, 복원의 의의, 복원 이후의 도시 변화, 서울시의 도시 비전 등이 소개된다.

비엔날레는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린다. 한국관은 9월 10일 오후 3시(현지시각) 개막된다. 올해 건축전의 주제는 '변용'(Metamorphoses), 총감독은 스위스 출신 쿠르트 포스터(Kurt Foster)이다. 내년 2월에는 한국 참가작가들의 귀국전이 열리고 백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선정 작품
오는 9월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제9회 국제건축전 주제관 선정 작품인 최문규씨 등의 '말기 테마파크'.

저작권(©)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ww.yonhapphoto.co.kr